부 귀 영 화 의 참 세 상 을 봅 니 다

지금 조국에서는 날마다 기쁜 소식들이 련속 전해져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바다물수송관건설이 끝나고 화려한 인민극장이 일떠서더니 오늘은 평양에 상하이의 포동지구를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창전거리가 일떠서고 대동강 한복판의 릉라도에 곱등어관과 유희장이 완공되였다니 듣는 소식마다 가슴을 울려주고 더 좋은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슬픔의 바다에서 거연히 일떠나 강성번영의 밝은 미래에로 내달리며 부귀영화의 새 모습을 강산에 수놓아가는 우리 조국입니다.

* *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온 겨레와 세계가 지대한 관심속에 우러러마지 않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직접 만나뵈온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4월 조국을 방문하여 태양절 10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저는 열병식광장의 주석단에서 김정은원수님과 사랑넘친 악수까지 나누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김일성광장의 높은 주석단에 서서 뜻밖에도 그이의 력사적인 첫 연설까지 듣던 때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 력사적인 연설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힘주어 선언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부귀영화!

처음 이 말이 귀전에 울려올 때 저는 격정이 울컥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열병식행사에 참가한 많은 해외동포들도 김정은원수님의 그 연설문구를 접하는 순간 너무 놀랍고 감격하여 야! 야! 하며 탄성을 터치였다고 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부귀영화》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사회주의부귀영화》라는 말은 처음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도 그렇지만 그 여덟글자에 담겨진 김정은원수님의 너무도 담대하고 자신만만하며 웅대한 기상과 포부가 더우기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것입니다.

아마 행성에 사는 사람들치고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부귀영화는 인류가 먼 옛날부터 꿈꾸어온 리상이고 념원입니다.

동양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신선들이 산다는 무릉도원을 동경하고 서양인들이 《유토피아》를 공상해온것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잘살아보려는 소원에서였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갈피에도 선조들이 부귀영화를 상징한다는 모란이나 함박꽃을 무척 사랑하여 결혼식날 신부의 옷에 모란꽃무늬를 수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기의 유명한 회화들과 도자기들가운데는 원숭이가 《부귀다산》의 상징인 포도를 따먹는 모습이 그려진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부귀영화를 오랜 세월 갈망해왔지만 그 꿈이 과연 실현되였습니까.

어제는 말할것도 없고 지금도 세계는 1%의 가진자와 99%의 못가진자들로 첨예하게 갈라져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인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부귀영화는 몇몇 돈있는자들만의 향유물로 되고있는것이 이 행성의 비극입니다. 그속에서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대다수의 민중은 나날이 생활난에 쪼들리고 오늘이 어렵고 래일은 암담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나락에 떨어지고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아직도 먼 달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있는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는 김정은원수님의 선언이 울려퍼졌으니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 감격에 목메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부귀영화는 아직 이 세상에 펼쳐진적없는 인민의 부귀영화입니다. 인민들모두가 마음껏 복락을 누리고 창조한 부가 인민들에게 다 돌려지는 진정한 부귀영화입니다.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는것이 나의 평생소원이라고 하시며 궂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김일성주석님, 인민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상에 떳떳이 내세우는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시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생활과 관련된 상업봉사기지들을 찾으셨던 김정일장군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과 애국의 뜻을 받드시여 오늘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부귀영화》라는 지상락원의 설계도를 환히 펼쳐주신것입니다. 세상은 가진자들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이여서 온갖 불평등과 사회악을 낳고있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부귀영화가 창조와 건설의 목적이고 앞날의 리정표로 되여 행복의 별천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꾸려나갑니다.

사회주의부귀영화가 활짝 꽃펴날 래일의 우리 조국은 겨레의 소원, 인류의 념원이 실현될 리상향이고 행복의 무릉도원이 아닐수 없습니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시각에 김일성광장에서 울려퍼진 사회주의부귀영화는 그대로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신 크나큰 약속이고 웅대한 정치강령입니다. 눈물겨웠던 고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조국인민들을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려는것이 그분의 확고한 결심이고 리상이며 포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원수님의 은정넘친 말씀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인민의 웃음소리 하늘땅에 차넘치고 만복의 열매들이 주렁질 주체조선의 찬란한 새 100년대를 보았습니다.

부귀영화는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위하는 참다운 정치가 있어야 꽃핍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 조국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직접 페부로 느꼈던 한 사람입니다.

조의기간이라고 해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고 하시며 추운 겨울날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이 몸을 녹일수 있게 도처에 더운물봉사매대, 가설건물들도 꾸려주시고 호상을 서는 사람들이 얼지 않도록 모자를 쓰고 장갑도 끼며 발열불임띠도 착용하도록 해주신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조국인민들과 같이 호상을 서던 우리 해외동포들도 감동에 겨워 더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민들이 아무리 춥다 한들 인민을 위해 한생을 눈보라속에 사시면서 현지지도초강행군을 이어가시고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각도 눈보라치는 12월의 차디찬 렬차에 계신 장군님의 그 천만고생에 어찌 비길수나 있는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인민들이 조금이라도 추워할세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신듯 애도기간이라도 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아야 한다고 하시며 물고기들을 인민들에게 공급할 긴급조치까지 취해주시였으니 이처럼 다심하고 인정깊고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를 력사는 알지 못합니다.

김정은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은 곧 하늘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에 의해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이후에도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펴나가고계십니다.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실 때에는 몸소 구내에 돋아난 잡풀까지 뽑으시며 인민들이 리용하는 유희장을 이렇게 방심해두고도 가책을 받지 않고 가슴아파하지 않는 일군, 인민들을 귀하게 여길줄 모르는 일군들이 천만명이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엄하게 질책하신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아가시여서 제일먼저 만나주시고 사랑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것도 바로 병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선언하시며 병사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걸음걸음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을 뵈올 때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합니다.

얼마전에도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돌아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관람석을 보시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으셨다고, 자신께서도 앞으로 이 극장에 공연을 보러 올 때에는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면서 중앙관람석을 없애라고 당부하시였다고 합니다. 후날 그분께서는 인민극장의 1 500석중의 한 좌석인 4렬 28번자리에 앉으시여 로동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28번좌석이 지금은 조국인민들이 너도나도 앉아보려고 마음쓰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유명한 좌석이 되였다고 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도 거듭 두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주택 및 상업거리가 일떠선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시고 결혼식식당에 들리시여서는 이곳에서 첫번째 결혼식을 하게 될 청춘남녀의 앞날까지 축복해주시였으니 그이는 진정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그 따사로운 인민사랑의 폭은 무한대합니다.

이번에 온 세계가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66돐행사를 지켜보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가 몸소 자신의 이름으로 전국의 2만여명에 달하는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을 대표로 평양에 초청하시고 아이들을 왕처럼 데려오도록 비행기와 배도 띄우고 특별렬차까지 편성하도록 해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눈물없이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열린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전국련합단체대회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참석하시고 축하연설까지 해주시리라고 누군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온 나라가 깊은 감동속에 접한 축하연설에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밝은 희망을 안겨주신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그토록 많으심에도 아이들을 위해 귀중한 웅근 하루를 통채로 바치시여 은하수관현악단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도 함께 보아주시였으니 령도자가 체육관을 꽉 메운 수만명의 아이들속에 계시고 아이들은 그분의 품에 너도나도 안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가슴뜨거운 혼연일체, 일편단심의 화폭이 과연 인류력사 그 언제, 어느때에 있었습니까.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에서 지적하신것처럼 아이들이 주인이 될 앞날의 강성조선은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모두가 화목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부귀영화가 활짝 꽃펴날 우리 조국의 래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조국동포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뵈오면 너도나도 그 품에 달려가 안기고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그분의 어버이정에 끌리여 매혹의 감정을 터치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머금군 합니다. 우리 재중동포들도 만나면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사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모두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일없는 저를 태양절 10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조선인민군창건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의 주석단에도 세워주시고 온 세계가 지켜보는 열병식주석단에도 또다시 높이 내세워주시는 하해같은 은정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날 열병식장에서 저는 또 한분의 태양을 보았습니다.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친화력에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그이의 환한 모습에서 온 나라가 밝아옴을 느꼈고 친근하신 그 음성에 매혹되여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분곁을 떠나고싶지 않은 위인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이를 잘 모시자, 그분을 잘 받들자, 그분을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의 부흥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열병식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서있는데 뜻밖에도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면서 주석단가운데로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저에게로 다가오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수십수백번이나 더 머리속에 새겨두었던 인사의 말이 저도 모르게 튀여나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전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과 재중동포들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최고사령관동지를 바라보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는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십니다. 꼭 건강하시고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습니다.

김정은원수님은 바로 이처럼 소박하시고 겸허하시며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랑으로 차넘치시는분이십니다. 온 겨레가 높이 모시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지난 태양절에 우리 재중동포들은 조국의 뜻깊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노래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니다》를 불렀습니다. 저도 김정은원수님께 마음속 인사를 꼭 드리고싶어 설화도 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4월의 하늘가에 울려간 우리들의 노래, 그것은 주석님과 장군님 그대로 오늘도 인민들에게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인민사랑의 태양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재중동포들과 온 겨레,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매혹의 웨침이였습니다.

조국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부귀영화는 결코 먼 래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겨레와 조국과 인민에게 언제나 승리와 밝은 미래만을 안겨주시는 탁월한 실력가형의 지도자, 백승의 정치가가 계시기때문입니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해외동포들도 칭송하듯이 가장 과학적이고 세련된 령도이고 답보와 주저를 모르며 세월을 주름잡아 앞으로만 내달리는 비약의 령도이며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 세계적인것을 지향해가는 탁월한 령도입니다.

그분의 온몸에서 넘쳐나는 드높은 자신감, 그 밝은 존안에 항상 어려있는 승리자의 미소, 지축을 쿵쿵 울리는것과 같은 힘과 열정, 기백이 솟구치는 발걸음을 보느라면 우리 해외동포들도 막 힘이 솟구칩니다.

어느 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계단을 단숨에 서너개씩 성큼성큼 건너뛰며 오르시는 모습을 기록영화의 화면으로 뵈오면서 우리 재중동포들은 너도나도 《야!》 하고 감탄하며 저런 분이 우리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기에 강성국가를 단숨에 일떠세울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김정은원수님의 《단숨에》의 기상이 어디서나 나래치는 우리 조국에서는 지금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모습들이 하나둘 현실로 펼쳐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네트에서 지방의 한 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해 새로 건설된 강성원의 희한한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꾸려진 전자도서관은 조국방문시 저도 가본적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그대로 옮긴듯싶었고 수영장, 물놀이장은 평양의 창광원에 비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밖에도 체육관, 탁구장, 리발실, 미용실, 오락실 등 없는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달음에 조국으로 달려가 강성원의 그 물놀이장에 뛰여들어 덕수도 시원하게 맞고 미용을 비롯한 봉사를 받고싶었습니다.

그 훌륭한 모든것이 다름아닌 로동자들을 위해 마련되였다니 저의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나라없던 지난날에야 로동자들이 어디 사람값에나 들었습니까. 오늘도 로동자들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나 최하층의 취급을 받으며 한갓 일하는 도구, 말하는 기계로 혹사당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에서는 로동자들이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온갖 복을 다 받아안고있으니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로동자들의 세상, 인민의 세상입니다.

인민의 기쁨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조국에서는 얼마전에 웅근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창전거리가 일떠서 성대한 준공식이 진행되고 새집들이 경사로 들끓었습니다. 자본주의나라같으면 정부청사나 대기업의 본사, 은행들이 들어앉을 수도의 한복판,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인민들이 사는 주택거리가 일떠선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멋진 새 집들에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이 돈 한푼 안내고 입사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으니 더우기 격정과 환희를 금할수 없게 합니다.

언제나 인간을 제일로 위하고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운것이 없이 베풀어지는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인민사랑의 화폭이며 로동당만세가 높이 울릴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아름다운 전경화입니다.

우리 조국에서 건설하는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인민을 위한 참다운 부귀영화라면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에서 부귀영화는 돈있는자들만이 누리는 가짜 부귀영화입니다.

비록 외형은 화려해도 그 현란한 불빛뒤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중국의 신문, TV에도 직업이 없어 고통받고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지어 삶의 막바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남조선을 탈출하여 미국과 일본, 여러 나라들에 간 사람들의 가긍한 처지와 운명에 대한 기사와 화면들이 계속 실리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볼 때마다 주석님께서 찾아주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지키고 빛내주시였으며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꽃피워가시는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깊어지군 합니다.

민족의 자주와 정의도 북에 있고 통일조국의 창창한 미래도 인민의 부귀영화가 펼쳐질 북에 있습니다.

중국에 나와있는 남조선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조선은 자주도, 민주도 없는 암흑의 사회라고.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김정은령도자님은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극진하시고 인정이 많으신분》, 《그분의 국민사랑의 정치하에서 살고싶다.》,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시여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며 솔직한 심정들을 피력하고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군 합니다.

참으로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행복의 품이고 온 겨레가 안겨살 통일조국의 환희로운 품입니다.

저는 인민사랑의 정치로 우리 조국을 만방에 빛내이시고 해외동포들에게 자주민족의 크나큰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영원히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살 운명의 태양으로 따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의 못 잊을 그날에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저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녀성의 몸으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대하여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재중교포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의 번영과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길에 저와 우리 재중총련일군들은 모든 본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최 은 복(필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임)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창전거리

조국해방 67돐에 즈음하여 북남공동선언문 발표

조국해방 67돐에 즈음하여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15일 북남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노예살이에서 해방된지 67년이 되는 날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의 피절은 통곡소리가 겨레의 가슴을 허비던 때로부터 시작되였던 치욕의 망국사를 돌이켜보며 지금 우리 겨레는 강도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총칼로 무참히 유린하였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수백만 겨레에 대한 학살과 강제련행, 랍치, 일본군성노예만행 등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조선민족고유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고 귀중한 문화유적과 자원을 마구 파괴, 략탈하는 등 우리 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때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은 잊을 수 없는 원한의 상처가 되여 겨레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아니였더라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의 현대사는 더욱 빛났을것이며 근 70년간이나 지속되여오는 분렬의 비극사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침략력사를 외곡하고 독도강탈행위를 로골화하면서 군국주의 재침열에 들떠 또다시 우리 겨레를 노예로 만들려 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동족대결과 모략소동에 일본반동들을 끌어들여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데로 나가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사촉밑에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강행하고있는 사대보수분자들의 반민족적인 책동은 북과 남,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놀음은 조선을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사대매국노들의 치욕스러운 《을사5조약》 날조놀음의 현대판으로서 일본군국주의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이 땅을 또다시 침략자들의 란무장으로 내맡기는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서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사적성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겨레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시대의 이 부름앞에 단군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반외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북과 남의 민족운동단체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외세,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우리는 《전민족적인 반일투쟁의 해》인 올해의 여러 력사적계기들에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할것이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을사오적》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 있는 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언제가도 지켜낼 수 없다.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가는 사대보수세력의 반민족적인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력사와 선조들앞에 도리를 다하는 길이고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 임무이다.

북과 남의 민족운동단체들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6.15자주통일시대를 굳건히 이어나갈것이다.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사대보수세력의 반통일적인 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나가는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북과 남의 민족운동단체들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놓여있는 온갖 도전을 물리침으로써 2012년을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을 다시한번 굳게 선언한다.

본사기자

인륜도덕도 모르는 패륜아들이 악행

지난 9일 남조선검찰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로수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악명높은 《보안법》 위반에 걸어 구속기소하는 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그의 방문을 도왔다는 미명하에 원진욱사무총장 역시 구속기소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온 민족을 격분케 하는 반민족적, 반인륜적, 반통일적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로수희부의장이 판문점을 넘어설 때부터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탄압을 일삼던 역적패당이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반민족적죄악을 저지르고있는것이다.

로수희부의장의 공화국방문으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물론 범민련 남측본부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다.

더우기 그는 공화국을 방문하여 온 겨레가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고 받들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전에 남녘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경모와 영생의 인사를 드리였다.

이는 조선민족의 얼과 피를 지녔다면 또 인간의 체모와 례의를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하기에 그의 의로운 행동은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에게 《밀입국》이니, 《북체제선동》이니 뭐니 하는 딱지를 붙여 온갖 탄압과 박해를 일삼다가 끝내 살인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구속기소하였으니 참으로 리명박역적패당은 초보적인 인륜도 례의도 모르는 패륜패덕한의 무리이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패당은 로수희부의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통해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태풍을 몰아오려 하고있다.

남조선경찰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총동원되여 그의 《밀입북은 단독범행이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의 조직적인 계획과 지원, 북과의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떠들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한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뿐아니라 리명박패당은 《종북척결》, 《친북좌익척결》을 부르짖으며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분렬와해책동에도 광분하고있다.

사실들은 리명박일당이 남조선에서 6.15지지세력을 탄압하고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치고있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이는 멸망에 직면한 반통일악당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보수집권당국은 로수희부의장을 비롯한 통일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만일 리명박역적패당이 마지막까지 시대와 력사앞에 반통일매국《정권》으로 남아있으려 한다면 그에 대한 민족의 심판은 단호하고 무자비할것이다.

박철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리명박역도가 이른바 《8.15경축사》라는데서 반통일대결망발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임기기간의 마지막으로 되는 《8.15경축사》라는데서 또다시 반공화국대결넉두리를 늘어놓아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역도는 동족대결과 특대형도발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만고대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제놈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통일적죄행을 역겹게 자화자찬하면서 《일관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마치도 효과를 나타낸듯이 떠들며 그 누구에 대해 《번화》니 뭐니 하고 줴쳤다.

그런가하면 다 깨진 《선핵포기론》을 또다시 들고나와 《비핵화》의무가 지켜지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역겨운 나발도 불어댔다.

더우기 《통일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라느니, 《통일준비》니 하면서 《흡수통일》 망상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이야말로 대결정책의 총파산과 사면초가의 위기로 극도의 궁지에 몰린자의 구차한 궤변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환각에 빠진자의 가소로운 망발이다.

괴뢰역도가 임기기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을 미국의 속국으로 더욱 깊숙이 전락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었으며 북남관계를 초토화시킨것밖에 없다.

그로 하여 리명박역도는 사상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여 지금 안팎으로 두들겨맞고 극도로 고립되여 림종의 시각에 처해있다.

이런자가 자기의 죄악을 분칠하다 못해 만신창이 된 북남관계까지도 대결정책의 성과물처럼 자화자찬한것은 역도야말로 얼마나 쓸개빠지고 철면피한 대결광신자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의 대결적본성에서 한치도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은 얼마전 괴뢰적십자사 총재가 보내온 《리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 우리가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립장부터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자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라느니, 저들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댄데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말로는 《리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있는척 하지만 실지로 그것을 성사시키려는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결국 리명박역도의 이번 《경축사》는 임기마지막날까지 내외의 규탄과 비난을 무릅쓰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내외에 공식 선포한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역도는 이번 망발을 통해 얻을것은 민심과 내외여론의 더 큰 비난과 규탄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리명박역도는 민심과 내외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대세를 바로보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통일광복절》

광복절 67돐 닷새를 앞둔 8월 10일, MB의 무모한, 독단적독도방문 《깜짝쇼》에 대해 보수세력들의 환영일색과는 달리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있는 자체가 매우 심상치 않을뿐만아니라 찜찜하고 뒤맛이 개운치 않다.

사면초가에 몰린 국면전환용치고는 경박스럽다 못해 경악스러운 사건이 아닐수 없다.

단군이래 우리의 고유한 령토인 돌섬 독도에 대나무 한대가 없음에도 다께시마라고 우기며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집어삼키기 위한 《국제분쟁지역화》기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수 있는 돌이 킬수 없는 명분을 제공한것이다.

왜, 이렇게 황당,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는것인가?

2008년 7월 9일 8개국 정상회의에서 후꾸다 야스오 수상에게 《독도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로 곤난하니 기다려달라.》는 MB의 매국적발언의 진위를 위킬릭스가 2008년 7월 17일 폭로하였다. 《내 동생(MB)은 뼈속까지 친일, 친미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리상득)의 말을 충직하게 수행해온 MB의 독도방문이 갑작스런 쇼가 아니라 3년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발언이 함의하고있는 의미와 청와대가 독도방문일정을 일본에 먼저 알리고 국내는 경호차원에서 보도자제를 요청, 12시간동안이나 깜깜한 밤중이 된것과 9월에 륙해공 3군과 해경까지 참가한 독도방어합동훈련계획자체가 《일본이 독도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결정적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송민순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고와 충언을 읽으며 《MB정권》의 사대매국행위를 짚어보지 않을수 없다.

지난 6월 26일,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정당화, 합법화시키는 제2의 《을사조약》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무도 모르게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기습통과시킨 2012년판 제2의 리완용인 리명박《정권》의 음모가 폭로됐음에도 사대매국의 《공권력》은 무자비하게 강행되고있다.

년례훈련이란 가면을 쓰고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북녘동포들을 침략목표로 하여 감행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군사작전이 결코 제 나라, 제 민족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안전과 리익을 보장하려는 친미전쟁세력들이 민족을 볼모로 삼아 벌리는 전쟁도박판이라는것은 부정할수 없다.

도대체 뭐가 진짜문제이고 원인인가?

조국광복과 함께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했어야 할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친미충견 충복들로 만든 미군정에 빌붙어 《매국》을 《애국》으로 둔갑시킨 사대매국노들의 67년의 력사는 뼈속까지 친일친미가 조국과 민족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는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한 력사, 5.16군사반란을 어쩔수 없었던 력사의 필연으로 호도해도 박근혜에 열광하는 미친 력사가 되풀이되게 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수는 없으나 자식으로서 량심은 선택할수 있다.

자기 아버지가 자행한 불법적사유재산찬탈마저 미화분식하는 반민주적인 몰상식에도 그녀의 말, 눈짓 한번에 천국과 지옥으로 변하는 제2의 《유신》사당, 《새누리당》의 《공천》장사가 들통나 돈누리당으로 발칵 뒤집혔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인비리》로 둘러막고 벌써 권좌에라도 앉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2012년 《돈누리당》세력들의 오류, 오만, 독선, 독단, 불통에서 제2의 박정희를 보고있다면 망상이고 착각일가. 민족의 량심, 한평생을 자주, 평화통일의 량심으로 살아온 진보적인사들이 사대매국 《정권》으로부터 《종북세력》으로 매도되고있다.

조국광복과 함께 친일매국노들을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심판하여 민족정기를 조국과 민족의 목숨으로 삼은 만고의 애국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 일심동체가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한 주체사회주의 조선의 자주애국력사와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친일친미사대매국노들을 청산하지 못한 《한국》력사의 《원죄》가 이토록 우리 민족을 몸서리, 진저리치게 하고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김정일대원수의 유훈을 《승리의 유훈》으로 심장에 새긴 전당, 전군, 전민의 철의 신념과 신심이 창조하는 눈부신 기적은, 세계의 군사대국 대통령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벼르고벼려온 선군백두산정의로 세기적부정의를 결판내고말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각오로 《그래? 할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는, 결연한 선포와 경고의 뿌리와 원천은 북녘인민들의 심장에서 기쁠때나, 슬플 때나 눈물로 울려나오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에서 나온다고 한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자주애국의 력사앞에 사대매국의 력사는 설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한다.

이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체제를 초월해 력사가 말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가.

제30차 런던올림픽에서 남북의 우리 선수들이 민족의 기상과 존엄을 마음껏 떨치는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우리 민족끼리 한덩어리가 된 통일조국의 찬란한 력사와 우리 민족이 하나된 《통일광복절》의 모습을 보고있다.

재도이칠란드동포 리준식

남조선에서 8.15자주통일결의대회가 진행되였다.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호소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9일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지금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집회와 시위, 서명운동 등 통일을 위한 실천운동이 전지역에서 전개되고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평화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있는 오늘의 정세를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기때문이라고 호소문은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당국이 미국과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계획하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놀음에 계속 매달리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돌아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폭압정국을 조성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공세를 멈추지 않고있다고 호소문은 단죄하였다.

호소문은 보수당국의 책동을 분쇄하자면 진보세력이 통이 큰 단결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유신》독재부활음모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현병철의 련임이 시사하는것은…

죽어도 고치지 못할 악습이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같다. 13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말썽많고 탈많은 현병철을 또다시 임명하였다고 한다.

현병철로 말하면 2009년 7월에 리명박에 의해 《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임기 3년간 남조선 각계에서 이 땅의 《인권시계를 꺼꾸로 돌렸다.》는 혹평을 받아온 인물이다.

《현병철련임 최악의 결정, 청와대 애완견》이라는 언론기사제목만 보더라도 현병철의 련임이 남조선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현병철은 2009년 임명당시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나 인권운동에 전혀 관여한적이 없는 《문외한》인데다가 《론문표절》의혹이 제기되고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친일파명단》에 오른 인물의 후손인것으로 하여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취임식까지 연기하였던 전적을 가지고있다.

그의 지난 3년간 행적은 《인권》위원장임명을 반대한 남조선 각계의 우려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인권위원회》는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기본임무이다.

그러나 현병철은 임기 전기간 《인권위원회》를 한갓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말을 되받아 집행하는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

남조선사회에서 인권문제는 그 어느 문제에 못지 않는 초미의 문제이다. 최근년간에만도 남조선에서는 《룡산참사》로 불리우는 철거민 학살사건, 최루액과 전자충격기까지 동원하여 파업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진압한 쌍룡자동차로조파업진압사건, 등록금납부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던 여러명의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던 교수마저 자살한 《한국과학기술원자살사태》, 비정규직로동자들의 해고철폐를 요구하며 300일넘게 진행된 한진중공업85호기중기롱성투쟁, 가혹한 구타와 따돌림을 비롯한 악습적병영문화로 여러명의 죽음을 초래한 해병대총기란사사건 등 심각한 인권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다.

현병철은 시간을 다투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해결할 대신 자기의 직권을 람용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깔아뭉개는 횡포한짓만을 감행하였다.

《룡산참사》당시 파잉진압을 지시하고 집행한 경찰들의 책임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기할데 대한 위원회회의 의제자체를 묵살하여 론난을 불러일으킨것을 비롯하여 청와대가 개입한 민간인사찰의혹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론의조차 못하게 한 그의 태도는 그의 《인권관》이 어떤것인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지난 7월에는 《룡산참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러갔던 현병철이 관객들에 의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권에 대한 《몰상식》과 현 집권자를 받드는 그의 《충성심》이 오죽했으면 2010년에는 《인권위원회》안의 3명의 상임위원중 2명과 61명의 전문위원들이 집단사퇴하는 전례없는 일까지 발생하였겠는가. 그가 지시한 직원들에 대한 리유없는 해고와 《중징계》가 너무도 부당하기에 위원회내부에서조차 《인권위에 직원의 인권은 없다.》, 《식물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현병철이 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저지른 엄청난 죄악은 또한 임명당시 《북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한 리명박의 말대로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혈안이 되여 날뛴것이다.

2010년 4월 현병철의 직접적지시하에 《인권위원회》안에 《북인권기구》라는것이 새로 조직되였다. 그해 8월에 현병철은 《북인권문제가 인권위의 임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여 사회각계에서 《인권위원회가 북인권위원회인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북인권문제》에 집착하던 나머지 현병철은 2010년 5월에는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러 온 유엔특별보고관에게 뚱딴지같이 《북인권에 관심이 없는가.》라고 하며 《북인권실태자료》라는것이 담긴 가방을 넘겨주려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북방송과 삐라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는가 하면 《인권위원회》안에 《북인권신고쎈터》와 《북인권기록관》을 설치하고 《신고》를 부추기는 선전물을 배포하는것과 같은 대결망동도 현병철의 직접적지시에 의해 벌어진것이였다.

현병철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기간 이처럼 남조선은 인권의 불모지로 화하였으며 주제넘은 《북인권타령》으로 인해 북남관계가 더 악화되는 결과만이 초래되였다.

최근에 남조선의 전국공무원로동조합 인권위지부가 인권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원의 89.5%가 《현병철 위원장재임 3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고 평가했고 《현위원장재임기간 인권위가 사회의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90.7%에 달했다.

하기에 오늘 현병철의 련임을 놓고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소속 인물들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선과 오기의 인사》, 《〈정부〉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정권〉의 반인권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말만 잘 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것은 결코 인정할수 없다.》, 《올림픽의 환호속에서, 독도방문의 이벤트뒤에 이어진 현병철의 련임소식은 인권위 직원들을 절망상태로 몰아넣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민심의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보수패당은 《현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중추적역할을 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북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헛나발을 늘어놓았다.

현병철의 련임은 결국 인권의 불모지인 남조선의 심각한 인권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기승을 부리려는 리명박 《정권》의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본사기자 김철민

《새누리당》은 리명박패당이 저지른 모든 죄행에 대한 공범자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고발장

남조선의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5년간 리명박역도와 결탁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고 남조선을 인권과 민생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다가오는 괴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리명박역도와의 《차별화》와 《쇄신》, 《변화》를 떠들며 《정권심판론》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새누리당》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만고역적 리명박역도와 한짝이 되여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새누리당》의 죄행을 명백히 알리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반통일적 동족대결 공범자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오늘 최악의 파국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리명박역도와 그에 적극 공모해나선 《새누리당》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0년 6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날을 《국치일》로 모독하고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독설을 공공연히 쥐쳐댔다.

2007년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한 합의서가 발표되였을 때에도 리명박역도와 입을 맞춰가며 《뒤거래가 있는것 같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안된다.》고 악담하다 못해 회담을 반대하며 평양방문에 동행하지 않을것이라는 이른바 《당결정》까지 공식발표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이후 공동선언들을 백지화하기 위해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리명박패당이 《비핵, 개방, 3000》을 들고나오면서 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해나서는데 대해 《지난 10년간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비호한것도, 역도의 정책을 《책임있게 실천할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괴뢰정부, 청와대와의 당정청협의체라는것을 내오고 늘 모여앉아 쑥덕공론을 벌려온것도 이 반역정당이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사건이 일어나자 당정청회의에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진상조사》와 《사죄》, 《재발방지》를 떠드는 리명박역도를 적극 지지하다 못해 한수 더 떠서 《북에 책임자처벌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악담질을 해댔다.

2010년 3월 《천안》호사건때에도 리명박역도가 《북의 소행》으로 몰아대자마자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현실앞에서는 하나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정청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그 무슨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맞장구쳤다.

역도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는 《5.24조치》를 발표하기 바쁘게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결연한 의지》로 극구 추어주는 추태를 부렸다.

2010년 6월에는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남조선 각계층이 《5.24조치》철회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을 양보할수 없다.》며 반대해나섰다.

2011년 정초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발표된 우리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제안들에 대해서는 리명박역도와 한짝이 되여 《국면전환용술수》, 《통일전선전략》, 《남남갈등노림수》 등으로 헐뜯으면서 외면하였다.

리명박패당의 반공화국인권소동과 모략책동의 앞장에서 날뛴것도 《새누리당》이다.

2008년 4월 리명박역도가 미국을 행각하여 《북인권문제》를 거들어댄데 대해 당시 당대표라는자는 《이전 정권에서 입밖에도 내지 못하던 북인권문제를 거론한것이 반가운 일》이라고 적극 지지해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7대 괴뢰국회때부터 들고나온 모략적인 《북인권법안》을 역도의 집권기간에 기어코 통과시켜보려고 집요하게 발악하였다.

2011년 2월 인간쓰레기들, 악질적인 극우보수패거리들과 함께 최전연지대에 기여나온 여당 《국회》의원 9명은 저들의 이름까지 써넣은 반공화국심리모략삐라를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는 대결망동을 부렸다.

이 패거리는 2009년 4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자 《과거에 퍼준 돈으로 미싸일을 만들었다.》고 허튼 나발을 불어댔는가 하면 올해 4월에도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우겨대면서 괴뢰국회에서 《규탄결의안》이라는것까지 채택하며 역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적극 부채질하였다.

《새누리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악랄하게 모독하고 박해하였을뿐아니라 괴뢰공안당국의 탄압책동도 적극 부추겼다.

특히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고 민족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방문한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한상렬목사를 구속한데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이 패거리는 2010년 6.2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색갈론을 들고나와 동족대결당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으며 올해 4월에 있은 괴뢰국회의원선거이후에는 《국회에 북의 간첩이 잠입하였다.》,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된다.》고 떠들며 리명박역도와 결탁하여 대대적인 《종북세력척결》란동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의 반공화국동족대결책동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온 겨레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지난해 12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칼질해나선 리명박역도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있게 대응해주어서 로고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두둔하고 찬양하였다. 뿐만아니라 《국회》조문단을 무어 평양을 방문하자는 야당들의 제안을 《남남갈등과 국론분렬을 일으킬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들고 끌끌내 반대하였다.

참으로 리명박역도와 한배를 타고 동족대결과 반통일의 쌍노를 저어온 《새누리당》의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반민족적 사대매국 공범죄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도와 함께 남조선을 식민지예속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몰아넣은 극악한 사대매국역적집단이다.

무엇보다 역도가 떠벌이는 《한미동맹강화론》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발벗고나섰다.

역도가 집권한 첫해인 2008년에 여당패거리는 《안보문제에서는 민족공조보다 국제공조가 우선이다.》, 《북의 견해보다 미국의 립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매국망언들로 꾸며진 《리명박정권의 외교전략》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친미사대적정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2008년 1월에는 한 의원을 리명박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여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맹약이 담긴 역도의 편지를 상전에게 바치게 하였다.

지난해 4월말 박근혜는 리명박역도의 특사로 유럽에 갔을 때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고용병들을 극구 춰주고 상금과 기념품따위를 안겨주는 추태를 부렸다.

2008년 8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라는자는 리명박역도가 첫 미국행각때 가진 《한미동맹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10년간 비틀거리던 한미동맹관계를 이제는 확고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수선을 떨었다.

친미사대에 환장한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도와 함께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렸다.

《새누리당》은 2012년에 넘겨받기로 되여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에 잘못된 메쎄지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돌리면서 보수단체들을 내몰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거부하는 1 000만명서명운동이라는것까지 벌려놓았다.

올해 5월에는 북의 《핵미싸일위협》을 떠들며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은 폐기되여야 한다.》고 망발함으로써 군통수권을 미국에 영원히 내맡겨두려는 매국적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도와 공모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미국에 통채로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2008년 5월 리명박역도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책동을 반대하는 대규모초불시위가 일어나자 여당패거리는 《시위가 소고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반미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라느니 뭐니 하며 악담질을 해댔다.

특히 리명박패당과 공모하여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함으로써 친미주구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2011년 7월과 10월에 고위당정청회의를 련이어 소집하고 《리명박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국회가 이를 완결짓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고아대며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쑥덕공론들을 벌려놓았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야당의원들을 괴뢰국회청사안에 아예 들여놓지도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리명박역도는 《다행으로 생각한다.》느니, 《협정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느니 하며 여당패거리를 위로하는 놀음까지 벌렸다.

《새누리당》은 거액의 미국산 무기들을 끌어들이려는 리명박역도의 책동에 발맞추어 괴뢰국방예산을 해마다 6~7%씩 대폭 늘이였다.

외세굴종이 체질화된 《새누리당》은 미국뿐아니라 일본반동들과도 적극 결탁해나섬으로써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올해 6월 리명박역도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데 대해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넘어서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두둔해나섰다.

실로 리명박역도와 함께 감행한 《새누리당》의 사대매국책동은 력대 그 어느 괴뢰통치배들도 무색케 할 가장 추악한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누리당》 것들이야말로 미일상전을 위해서는 민족의 리익과 안전을 통채로 서슴없이 제물로 바치는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반인민적파쇼악정, 부정부패공범죄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도의 반인민적악정과 파쇼독재를 법적으로 뒤받침하고 앞장에서 실현하였다.

리명박역도의 4대강사업이 각계층의 한결같은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이 패거리는 《4대강사업을 중지한다면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2009년 12월 야당들의 강력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새해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야당이 천막롱성투쟁을 선언하고 사회각계에서 항의가 비발치자 여당패거리는 황급히 청와대에서 리명박역도와 함께 긴급모임을 가지고 수습대책을 모의하던 끝에 졸개 몇명의 목을 떼고 《반성성명》을 발표하는 놀음으로 여론을 무마시키고는 역도가 4대강사업을 그대로 추진할수 있게 하였다.

2010년 3월 4대강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된데 독이 오른 리명박역도가 《대통령인 내가 나서야 되겠는가. 4대강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호통치자 대표를 비롯한 당의 중진의원이라는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겠는가. 당에서 책임이 크다.》고 발라맞추면서 4대강광고에 적극 나섰다.

그 꼬락서니가 얼마나 꼴불견이였으면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리명박의 말 한마디에 여당이 1렬종대로 모여 4대강을 홍보》하고있다고 야유하였겠는가.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도의 언론장악책동에도 적극 추종하였다.

《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리명박역도의 친재벌정책, 파쇼적억압정책을 법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수많은 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였다.

《새누리당》이 여당의 전횡을 부리며 18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악법만 해도 무려 107건에 달한다. 이것은 력대 괴뢰국회의정사상 최대기록이다.

《새누리당》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리명박역도의 파쇼폭압만행을 비호하였다.

이 패거리는 《MBC》방송의 《PD수첩》제작진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제작, 방영하였다고 하여 리명박역도가 그들을 허위사실류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이에 편승하여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아댔다.

괴뢰패당의 극악한 탄압만행으로 하여 철거민들이 불타죽은 룡산철거민사건과 수많은 파업로동자들이 구속된 쌍룡자동차사태 등에 대해서도 《파잉시위에 대응한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공공연히 옹호함으로써 유가족들과 각계층의 격분을 자아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자는 지난 5월 리명박역도의 방송장악책동에 항의하여 각 언론사 직원들이 벌린 대규모적인 장기파업투쟁을 《불법》이니, 《정치파업》이니 하고 모독하였으며 남조선사회 각계층이 여당이 직접 나서서 언론사파업사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자 《절대로 동조 못한다.》고 도전해나섰다.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 대해서도 《김대중, 로무현정권시기의 민간인사찰부터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들고나와 역도패당이 저지른 파쇼적인 범죄를 비호두둔하였다.

《새누리당》은 역도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도 덮어버리려고 하였다.

역도의 친형인 이전 《국회》의원 리상득, 전 당대표이며 《국회》의장이였던 박희태, 《국회》의원 윤진식을 비롯하여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검은돈을 받아먹은것으로 하여 감옥신세를 지고있거나 재판을 받은 《새누리당》내 리명박측근들은 무려 수십명에 달하고있다.

《새누리당》이 날마다 줄줄이 폭로되고있는 리명박친인척, 측근들의 부패행위를 어떻게 하나 무마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저들도 그러한 행위들에 가담한 공범자들이기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사건으로 리명박역도가 사면초가의 운명에 처하게 되자 여당패거리는 2011년 7월 은행의 일부 자금이 2007년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에 흘러들었다.》는 얼토당토않은 《제2대북송금설》을 조작해내여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획책하였다.

최근에는 《정치쇄신》을 떠들어온 《새누리당》안에서 지난 4월 총선거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아먹은 사실이 또 드러나 리명박패당과 갈고갈은 부정부패본당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비발치고있다.

실로 《새누리당》이야말로 리명박역도와 공모하여 남조선을 불법무법의 파쇼독재암흑사회로 만들고 온갖 부정부패로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한 파쇼독재당, 부정부패당이다.

이렇듯 리명박역도와 뗄래야 뗄수 없는 결탁관계속에 온갖 악행을 일삼아온 《새누리당》이 역도가 인민들의 버림을 받아 저들의 재집권에 장애가 되자 그 무슨 《선긋기》니, 《차별화》니 하며 오그랑수를 쓰고있으니 이 얼마나 역겨운 무리인가.

지금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선 박근혜만 놓고보더라도 2010년 8월과 10월 리명박을 만나 《현 정부의 성공에 정권재창출이 있다.》고 하면서 《리명박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라는 알량한 건배사까지 한바 있다.

한편 리명박역도는 2010년 10월 박근혜에 대해 《우리는 서로 설명이 필요없는 이심전심의 관계》라고 하였는가 하면 올해 3월에는 《박근혜는 유망한 정치인이며 그만한 정치인은 몇사람 없다.》고 극구 추어올렸다.

리명박역도와 그렇듯 더러운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적, 반인민적악정을 추구해온 《새누리당》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돌변하여 역도와의 《차별화》를 부르짖는것이야말로 조소거리가 아닐수 없다.

《새누리당》이 저들에게 쏠리는 분노한 민심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고 체면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도 크며 또 그런 유치한 놀음에 속아넘어갈 사람도 없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새누리당》을 리명박역도와의 공범자로 락인하고 이미 침을 뱉은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리명박역도와 공모결탁하여 민족앞에 저지른 대역죄로 하여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8월 16일
평 양

(전호에서 계속)

민심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공약

《4대강정비사업》도 리명박역도의 대표적인 《공약》으로서 보수패당이 의욕적으로 강행추진한것이다.

원래 리명박역도는 전국의 강들을 서로 련결하여 거대한 운하망으로 만든다는 《한반도대운하계획》이라는것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으나 사회각계로부터 경제적타당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역도는 어떻게 하나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임기기간 주요치적으로 만들려는 야심밑에 그 명칭을 《4대강정비사업》으로 둔갑시키고는 이를 실행하면 400억US$의 경제적 효과와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느니, 홍수와 가뭄피해를 막을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한국판뉴딜정책》(경제부흥정책)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였다. (《뉴시스》 2008. 1. 31, 《프레시안》 2008. 5. 25, 《오마이뉴스》 2010. 12. 2, 《련합뉴스》 2010. 8. 8)

여기에 《새누리당》패들이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앞장섰다.

《새누리당》패들은 2008년말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4대강정비사업》이 정당하다고 떠들면서 《반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고 리명박역도를 적극 부추겼다. 그리고 2009년말에는 《4대강정비사업》에 무려 200억US$를 쏟아붓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해나서자 《국회》회의장에 야당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그안에서 저들끼리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노컷뉴스》 2008. 12. 16, 《뉴시스》 2009. 12. 31)

보수패당의 망동으로 지난 3년간 멀쩡하던 강들이 파헤쳐지고 천문학적인 돈이 탕진되였으나 아무런 경제적효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참혹한 후과만이 초래되였다.

4대강이 정비되였다고 하지만 지난해 남조선도처에서 《물란리》가 터졌고 올해에는 최악의 《가뭄사태》가 지속되여도 속수무책이였다. 4대강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공사전보다 10배나 늘어나 년간 10억US$를 지불해야 할 형편에 처하였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20여명, 중상자는 수십명에 달하는 등 4대강공사장에서의 사망률은 일반건설작업장에 비해 10배이상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자주민보》 2011. 8. 4, 《참세상》 2011. 2. 1, 《미디어오늘》 2011. 6. 16, 2012. 6. 22)

생태환경과 력사유적도 무참히 파괴되였다.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무려 220만t이나 되는 공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들이 공사장과 그 주변에 쌓여 심각한 대기오염과 토지오염을 발생시켰다. 천연동식물의 보물고라고 하는 락동강의 을숙도와 일웅도에서는 공사로 말미암아 69종에 1만 1 140여마리의 동물들이 생존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한강에서는 려주보와 강천보 등 보건설과 준설작업으로 귀중한 력사유적인 《세종대왕릉》의 기초가 파괴되고 천년이상의 력사를 자랑하는 《신륵사》가 침수될 위험에 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량산시에서는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료해도 없이 공사를 마구잡이로 진행한 결과 공사장에서 고려시대의 귀중한 력사유물인 불상과 고조선시대의 제방이 파괴되였다. (《사람일보》 2011. 4. 6, 《련합뉴스》 2010. 10. 20, 《련합뉴스》 2010. 10. 5)

사실이 이러함에도 리명박역도는 지난 7월 해외행각길에서 《4대강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하고있다.》고 자화자찬하였는가 하면 라지오연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가철에 4대강주변을 려행하라고 제안하여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남조선항간에서는 《4대강정비사업》을 가리켜 《죽음의 사(死)대강》, 《돈먹는 하마》, 《환경대재앙사업》이라고 부르고있으며 올해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보수패당의 《4대강정비사업》을 최악의 환경파괴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오마이뉴스》 2009. 9. 23, 《프레시안》 2011. 10. 23, 《래일신문》 2012. 7. 10)

보수패당은 매국배족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확대하는데도 적극 매달렸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실행책동이다.

뼈속까지 친미사대로 물젖은 보수패당은 《한미동맹관계우선》을 내들고 미국에 모든것을 섬겨바치면서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대통령권좌》에 올라앉자마자 미국에 찾아가 《자유무역협정》실행을 구걸하면서 그 대가로 남조선소고기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이는 반민족적범죄행위도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그후에도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심보밑에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에 굴복하여 본협정에 비해 년간 9억US$의 경제적손실을 추가로 부담하는 협정문에 서슴없이 서명하였다. (《머니투데이》 2008. 4. 20, 《경향신문》 2008. 4. 19, 《프레시안》 2011. 7. 22)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가 하는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의무조항이 미국은 7개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은 55개로서 8배에 달하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오마이뉴스》 2010. 11. 3)

보수패당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해나선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을 향해 한겨울에 물대포를 쏘아대고 마구잡아가는 등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깡패들을 내몰아 《국회》출입문을 봉쇄하고 저들끼리 날치기로 《협정비준안》을 강행하였다. (《오마이뉴스》 2011. 11. 24, 《뉴시스》 2011. 12. 10, 《노컷뉴스》 2011. 12. 31, 《프레시안》 2011. 11. 22, 《통일뉴스》 2011. 11. 22)

유럽동맹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도 보수패당이 그 무슨 《동아시아의 자유무역중심》을 떠들면서 지난해 5월 단독으로 강행처리한것이다.

리명박역도패당은 이에 대해 사회각계가 들고일어나자 세계최대의 《단일경제권》인 유럽동맹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수출이 대폭 늘어나 《국내총생산액》이 년평균 0.56% 증가할것이라고 떠들면서 저들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협정》실행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남조선의 수출은 그전보다 오히려 12%나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13%나 늘어나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서울신문》 2011. 5. 5, 《한겨레》 2012. 6. 29, 《조선일보》 2012. 6. 30)

제반 사실은 보수패당이 집권기간 《정권》의 치적쌓기《공약》, 재벌들과 외세에게 특혜를 주는 반민족적, 반인민적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 광분하였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이 초래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 철 수

(다음호에 계속)

굴욕협정체결중지를 요구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진보련대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리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기어이 체결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만일 협정이 체결된다면 남북간 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우리 민족이 영구분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협정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의 기쁨 넘쳐나는 릉라인민유원지

풍치수려한 대동강물결우에 실실이 드리워진 능수버들이 구슬같이 맑은 물우에 비단필을 풀어놓은듯 그 경치 하도 아름다와 널리 알려진 릉라도, 예로부터 평양의 절경으로 자랑높은 릉라도에 세상에 자랑할만 한 종합적인 인민의 유원지가 훌륭히 꾸려졌다.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 한복판에 곱등어관과 물놀이장, 유희장, 미니골프장을 비롯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릉라인민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의 물결 그칠새 없다.

새소리, 물소리로 유정하던 릉라도가 지금은 갖가지 유희시설들을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로 떠나갈듯 하다.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곱등어관에서 홍겨운 음악에 맞추어 온갖 기교를 부리는 곱등어들의 재주도 볼만 하지만 아찔하게 높은 곳에서 물미끄럼대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오며 와ㅡ와ㅡ 소리치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며 무더위로 달아오른 몸을 식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그런가하면 관성단차, 문어회전반, 꼬임회전반, 비행자전거 등 유희시설들이 주위가 좁다하게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유희장도 사람들로 흥성인다. 근 100정보에 달하는 릉라도가 즐거움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로 통채로 움씰거리는듯 하다.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곱등어관에서 홍겨운 음악에 맞추어 온갖 기교를 부리는 곱등어들의 재주도 볼만 하지만 아찔하게 높은 곳에서 물미끄럼대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오며 와ㅡ와ㅡ 소리치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며 무더위로 달아오른 몸을 식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그런가하면 관성단차, 문어회전반, 꼬임회전반, 비행자전거 등 유희시설들이 주위가 좁다하게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유희장도 사람들로 흥성인다. 근 100정보에 달하는 릉라도가 즐거움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로 통채로 움씰거리는듯 하다.

릉라도의 새 풍경, 그것은 세월이 가져다준 기적도,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도 아니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이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릉라도에 최상급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건설할것을 발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개선청년공원을 현지지도하시며 릉라도에 하루빨리 희한한 유원지를 꾸려주자고 간곡히 이르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건설대상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릉라도 지구를 세계일등급의 종합적인 유원지로 멋있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올해 릉라도유원지건설장을 세차례나 찾고찾으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은 곱등어관, 물놀이장, 유희장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사색과 실천의 순간순간을 인민을 위한 무한한 헌신으로 이으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의 령도가 있어 릉라도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종합적인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질수 있었던 것이다.

하기에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은 해외동포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갖가지 유희오락시설들을 마음껏 타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생각되는바가 많다. 세상에 유원지는 많아도 고국에서처럼 철두철미 평범한 근로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그런 유원지는 없다.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 행복을 누려가는 고국인민들이 참으로 부럽다.》…

본사기자 홍범식

즐거움을 안겨주는 곱등어들의 재주

릉라곱등어관에서

건물외형이 마치 곱등어가 바다를 헤염쳐가는듯 한 모양으로 특색있게 세워진 릉라곱등어관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중앙홀에는 길이가 근 10m, 높이가 수m에 달하는 대형벽어항이 앞벽면을 꽉 채우고있다.

그속에서 여러종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물속을 헤가르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바다속에 들어온듯 한 시원한 느낌을 안겨준다.

릉라곱등어관에서 특징적이라 할수 있는것은 전체 내부공간이 그대로 해양과학기술지식보급실로 꾸려진것이다.

모든 홀들과 통로들에 바다와 관련한 사진, 그림, 상식글들을 담은 전광판들을 수십개나 설치하였는가 하면 바다동물들의 박제품, 표본들을 비치하고 바다와 관련한 정지 및 동영상편집물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내보냄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폭넓은 리해와 지식을 가질수 있게 해준다.

곱등어관람홀은 1 460석의 관람석과 공연수조, 보조수조들로 이루어져있다.

맑고 푸른 물이 수조마다에 출렁이고 파도소리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은은히 울려퍼지는 관람홀은 해변가의 정취를 그대로 안겨주고있다.

곱등어들이 재주를 펼치는 공연수조의 체적만 해도 수천㎥에 달하며 이외에 16개의 보조수조가 있는데 이 대형수조들에 바다물이 직접 공급되고있다.

이렇듯 바다와 꼭같은 생태환경속에서 곱등어들의 재주가 펼쳐진다.

릉라1호, 릉라2호 등으로 이름붙여진 곱등어들이 처녀조교사들의 구령과 몸짓에 따라 물면으로 뛰여올라 공중회전을 하기도 하고 높이 매달린 공을 치기도 하는 등 신기한 재주들을 련속 펼친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처녀, 총각들도, 늙은이들도 희한한 모습에 절로 탄성을 올리군 한다.

도시 한가운데 펼쳐진 《바다》에서 곱등어재주를 보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정서생활, 이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정책이 안아온 사랑의 화폭이다.

본사기자

날리는 물보라, 청높은 웃음소리

릉라물놀이장에서

여름철에 사람들은 시원한 물부터 찾는다. 찌는듯한 무더위, 끝없이 샘솟는 줄땀, 장마비에 의한 습한 대기… 이를 피하는 최선의 방도는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있는것이다. 하기에 해마다 여름철이 오면 바다가나 해수욕장은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군 한다.

요즘 새로 일떠선 릉라물놀이장에도 매일같이 사람들로 차고넘친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담긴 여러가지 형태의 물놀이수조들에는 수영을 하거나 서로 물쌈을 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이 보인다. 곳곳에 세워진 덕수터들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몸의 시원함과 상쾌감을 되찾고 모래불에서 일광욕을 하고있는 남녀로소의 모습들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물놀이장 건물지붕에 특색있게 만들어진 롱구장과 배구장, 모래터배구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청춘남녀들이 젊음을 과시하고있다.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청높은 목소리, 웃음소리가 비릿한 물냄새에 실려온다. 특색있게 만들어진 물미끄럼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4개의 주로로 되여있는 물미끄럼대는 근 20m의 높이에서 급한 경사를 따라 맨몸으로 혹은 구명대를 리용하여 쏜살같이 내리지치게 하는데 웬간히 담이 큰 사람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 유희기재이다.

구경하는 사람도 미끄러져 내리는 사람도 다같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야!ㅡ》 하고 탄성을 터친다. 물면으로 내리지쳐 물보라가 날리는것과 동시에 웃음소리가 울려퍼진다.

날리는 물보라, 청높은 웃음소리… 이것이 새로 일떠선 릉라물놀이장의 모습이다.

얼마전 이곳을 돌아본 한 재중동포는 《정말 멋있다. 강 한복판에 배마냥 둥실 떠있는 릉라도에 이처럼 훌륭한 물놀이장이 운영되고있다니 아마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돈많은 사람들이나 즐길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고국에서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리용하고있으니 인민의 진정한 세상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뭉클함을 금할수 없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이렇듯 훌륭한 물놀이장도 통채로 인민의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미니골프장

릉라인민유원지에 훌륭히 꾸려진 미니골프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미니골프장은 말그대로 작은 골프장이라는 뜻이다.

잘 조성된 록지와 신선한 공기속의 보람찬 생활이라는 골프의 고유한 의미를 담고있는 이 미니골프장은 면적이 3 200㎡이다.

18개의 미니골프주로들이 키높이 자란 나무들과 푸른 주단을 펼친 록지속에 펼쳐져있다. 사람들은 릉라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이곳에서 골프를 치며 정신육체적피로를 풀고있다.

골프는 먼 옛날 양몰이군들이 끌이 굽은 막대기로 돌을 통겨 그 거리의 정확성을 겨루는 놀이를 한데로부터 유래되였다는 설도 있고 600여년전에 네데를란드에서 겨울에 빙상호케이와 비슷한 놀이를 바다기슭 모래판에서 한데로부터 나왔다는 견해도 있다.

골프는 골프채로 공을 쳐서 구멍에 넣는 구기운동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채로 공을 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물결식, 골뱅이식, 화산식, 두 언덕넘기식 등 매 주로의 장애물들을 넘기 위한 묘리를 찾아야 한다.

누구나가 골프치기를 하느라 시간가는줄 모르는 릉라인민유원지 미니골프장, 여기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진다.

여기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미니골프장을 만들도록 하시고 관련 문건에 큰 나무그늘에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쉬고있는 그림까지 그려넣으시며 골프설비사이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줄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세심한 지도속에 릉라인민유원지 미니골프장은 오늘과 같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에 랑만과 기쁨을 더해주는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환희의 절정에 올라

*** 릉라유희장에서 ***

운치를 돋구는 물미끄럼대에서 물갈기를 날리며 좋아라 터치는 웃음소리, 곱등어들의 신기한 재주에 반한 관중들의 박수소리, 안정과 휴식을 주는 미니골프장의 특유한 정서만이 릉라인민유원지의 전부가 아니다.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바쁘게 황홀한 불의 세계를 펼친 릉라유희장에서도 갖가지 현대적인 유희오락시설들을 리용하며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떠날줄 모른다.

무한대한 우주공간의 별들이 여기에 다 모였는가 현대적인 유희오락시설들과 나무들에서, 바닥에서 쏟아져나오는 환한 불빛으로 황홀경을 이룬 릉라유희장에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제일먼저 찾는 유희시설은 회전매이다.

사람들을 태운채로 순식간에 360° 회전하여 눈앞이 아찔하게 하기도 하고 용감성과 담력을 시험이나 하려는듯 하늘공중에서 한참동안이나 꺼꾸로 서있기도 하는 회전매, 회전매를 탄 사람들은 물론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저도모르게 눈을 꼭 감게 하는 광경은 볼수록 웃음을 자아낸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것 같은 아찔함에 다시는 탈것 갈지 않다가도 일단 타고나면 순간에 담이 몇배나 커진듯 다른 유희시설들을 다 타볼 욕망으로 여기저기로 뛰여다닌다.

하늘을 꿰지를듯 수십m탑으로 쇠바줄그네를 타고 올라가는 수직회전그네며 보기에도 용수철처럼 생겨 순식간에 사람들을 허공으로 들어올리는 튐성회전반, 우주공간의 행성들을 방불케 하는 우주비행반… 그런가하면 눈깜짝할 사이에 하늘높이 날아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급강하탑, 꽈배기처럼 라래치며 돌아가는 꼬임회전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경쾌하게 달리는 관성단차 등 유희기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딜가나 사람들로 붐빈다.

여기저기서 《야ㅡ》 하는 탄성과 함께 끝없이 터져오르는 명랑한 웃음소리, 웨침소리가 불야경을 이룬 유원지를 들었다놓는다. 그 어느 유희기구나 사람들에게 용맹과 담력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기에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릉라유희장이다.

유희장의 곳곳마다에는 유희기구들을 타고나서 간단히 요기를 할수 있는 청량음료점, 국수집, 김밥집, 차집 등 봉사시설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1지구와 2지구로 이루어진 릉라유희장사이에 은은한 정서를 자아내는 정원길과 휴식터들이 갖추어져있고 발목이 시도록 숲속길을 걷고 또 걸으며 산보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채를 띤다.

랑만에 넘쳐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해가는 인민들의 모습 대동강반의 자연풍치와 한껏 어울려 한폭의 그림처럼 어려오는 릉라유희장이다.

본사기자

금 강 산 천 선 대

풍부한 식물지식을 주는 《조선식물도감》

최근 중앙식물원에서 전자출판물 《조선식물도감》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다.

새로 제작된 《조선식물도감》에는 현재 공화국에서 자라고있는 2 000여종의 식물들과 중앙식물원에서 자라고있는 선물식물 1 000여종까지 모두 3 000여종에 달하는 식물들이 수록되여있다.

중앙식물원 연구사들은 집필요강을 작성하고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차일봉, 관모봉 등 우리 나라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봉우리들을 여러차례씩 오르내리며 식물조사와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선식물도감》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조선식물도감》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출판물로 제작됨으로써 과학자들뿐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쉽게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시기 여러차례 출판된 도서 《조선식물도감》은 해당한 식물표본을 삽화나 펜화로 삽입하였기때문에 정확한 실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수 없었으며 우리 나라 원종식물들을 기본으로 하고 풍토순화시킨 다른 나라의 일부 식물만을 취급한것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들을 가지고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완성된 전자출판물 《조선식물도감》은 이러한 부족점들을 극복하고 실지 사진자료들을 넣어 사람들에게 생동한 표상을 줄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선물로 올린 진귀한 식물자료들까지 안받침하여 그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살려 열람자가 아무때나 찾아볼수 있게 편리를 도모하고 식물구분도 약용식물과 식용식물 등으로 세부화함으로써 지난 시기 도서를 리용하는데서 느끼던 불편한 점들을 완전히 없앴다.

전자출판물 《조선식물도감》은 겨레에게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깊이 새겨주고있으며 온 세계가 우러르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며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말 상식

《무랍없다》와 《허물없다》

사람을 대하는데서 조심하거나 어려워하는 티가 전혀 없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개별뜻을 보면 《무랍없다》는 몹시 사이가 가까와 어려워하는 티가 전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대할 때, 같은 나이끼리에서 많이 쓴다.

례: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랍없이 지내왔다.

《지배인동무가 엄하지 않으니 무랍들 없구만.》

《허물없다》는 체면이나 틀을 차리거나 조심하는 기미가 없이 소탈하게 대하는것을 나타낸다. 주로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대할 때에 또는 같은 나이에서 많이 쓴다.

례: 그는 로동자들의 흙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았다.

본사기자

해장기능이 뛰여난 조선음식

해장은 간밤에 마신 술의 알콜성분을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술과 함께 먹은 안주들을 소화시키는 일종의 해독활동이다. 독한 술을 많이 마시면 그것이 위장으로 들어가 위염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는 반드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배설시켜야 한다. 해장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선지해장국, 콩나물국밥, 생태탕, 복어국, 순대국 등을 즐겨먹었다.

◎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은 방금 잡은 소의 피를 한번 삶아두었다가 우거지국에 넣어 끓인것이다. 우거지국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는데 거기에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한 선지가 들어가면 영양가가 두배이상의 효과를 낸다.

◎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은 콩나물뿌리쪽에 있는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C가 몸안에 있는 알콜을 분해시켜주고 음주로 인해 쇠한 기력을 회복시켜준다. 또한 콩나물의 섬유소가 배속으로 들어가 오장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름기와 알콜을 녹여버리고 소화를 촉진시켜 숙취를 물리쳐준다.

◎ 생태탕

명태를 가공한 모든 음식은 소화가 잘 된다. 명태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칼시움이므로 영양가도 높다. 그가운데서도 생태탕은 살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아 애주가들이 가장 즐기는 해장음식의 하나이다.

◎ 복어국

복어는 지방이 적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몸까기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과음한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속이 울렁거리는것은 술과 함께 몸안에 들어온 아세트알데히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뛰여난 성분을 가지고있으므로 복어탕이야말로 최고의 해장음식이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건강에 해로운 습관

- 아침밥을 먹지 않는것.
- 엎드려 자는것.
- 오줌을 참는것.
- 손톱을 깨무는것.
- 손가락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며 손가락관절을 꺾어 《딱, 딱》 소리를 내는것.
- 눈을 쪼프리고 보는것.
- 잠자기 전에 얼굴을 씻지 않고 그냥 자는것.
- 가려운 곳을 오래 긁는것.

본사기자

지구환경

지구환경은 인류에게 각종 자원을 보장해주는 장소인 동시에 인류가 부단히 개조하는 공간이다. 지구환경 범위는 대기권의 대류권전체와 성층권의 아래부분, 수권, 생물권, 토양권, 암석권의 겉층 등이다.

사람과 함께 각이한 생물은 지구환경에서 발생발전하고 성장한다. 오늘날에 와서 환경이 인류에 주는 영향이 급격히 커지면서 지구의 일부 요소 즉 대기권, 수권, 생물권들에 량적 또는 질적변화를 일으켜 인류와 생물계에 해를 주거나 위험을 줄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이런 현상은 인류로 하여금 지구적범위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구환경개념은 이러한 요구로부터 형성된것이다. 환경과학에서 지구환경이 포함하고있는 내용은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성질을 가지는 일부 환경요소와 환경구조의 변화상태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생명계에 주는 위험과 영향, 추세 등이다.

현재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서는 적지 않은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가운데서 주요하게는 오존층감소, 대기중의 CO_2 량증가, 해양오염, 생태계균형파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나선다.

본사기자

닭알을 삶을 때

닭알을 삶는 일이 쉬운것 같지만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 삶지 못하면 터져서 흰자위가 삐여져나오거나 노란자위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닭알을 삶을 때 이리저리 굴리면서 삶으면 노란자위가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익힐수 있다. 터지지 않게 하려면 닭알의 둥근쪽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 공기를 뽑는것이 좋다.

랭장고에 보관하였던 닭알은 꺼내여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삶아야 한다. 삶은 닭알은 소금속에 잠간 넣었다가 꺼내여 껍질을 벗기는것이 좋다.

닭알을 삶은 다음 껍질을 쉽게 벗기느라고 찬물에 담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껍질은 잘 벗겨지지만 식어서 맛이 없을뿐아니라 인차 먹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다.

금이 간 닭알은 갓 끓기 시작한 진한 소금물에 삶으면 흰자위도 노란자위도 삐여져나오지 않는다. 물에 차찌끼를 넣고 닭알을 삶아도 맛이 한결 더 좋아진다.

본사기자

낚시질애호가의 기쁨

《또 한마리 걸렸다!—》

낚시질애호가들이 모여앉은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또다시 기쁨에 넘친 탄성이 울려퍼진다.

그동안 익혀온 고기잡이솜씨를 발휘하여 드디여 큼직한 붕어를 낚아낸 낚시군의 얼굴에 어린 미소는 얼마나 흐뭇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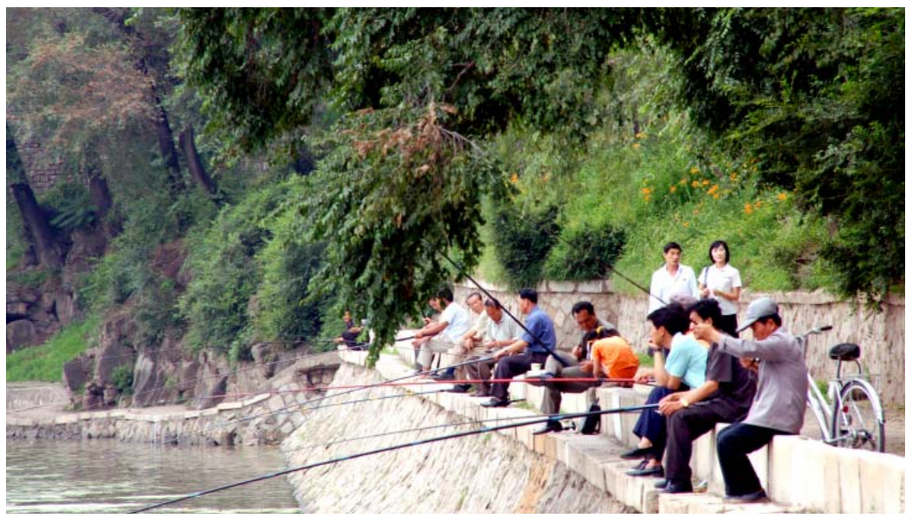
이런 멋에 낚시질을 한다며 또다시 능숙한 솜씨로 미끼를 물린 낚시대를 길게 드리우는 그의 모습은 과연 대동강반의 유명한 낚시군다왔다.

이번에는 자기 낚시대에 고기가 걸리지 않을가 하는 기대를 안고 주시해보는 주위의 낚시군들의 긴장된 모습이 보인다. 또 한켠에서는 미끼를 물고 늘어진 물고기와 힘내기를 하는 젊은축들의 모습도 보인다.

여기저기서 연방 낚아대는 붕어, 납주레기, 살치 등 큼직한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구경군들의 모습 또한 이채롭다.

대동강반에 펼쳐진 이채로운 낚시질풍경은 인민들이 누리는 풍만한 정서생활에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길복순



력사상식

《진주대첩》

《진주대첩》(진주대승리)은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 첫 시기인 1592년 10월 초순에 우리 인민이 중요한 행정군사중심지의 하나였던 진주를 지켜 싸운 제1차 진주성방어전투에서의 승리이다.

1592년 10월초 왜놈들은 군사전략요충지인 진주를 빼앗기 위하여 《16장수》가 지휘하는 수만명의 침략군을 내몰았다. 당시 성에는 목사 김시민의 지휘밑에 3 800여명의 관군과 얼마 안되는 의병들, 성안 인민들이 있었다.

적들은 10월 6일부터 성을 포위하고 악착스레 덤벼들기 시작했다. 방위자들은 적들을 성가까이 접근시키고 일제히 활, 조총, 포를 쏘아 물리쳤다. 적들이 흙산을 만들고 수천개의 참대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넘으려 하면 현자총통, 질려포를 쏘고 돌과 끓는물을 들씌웠으며 자루가 긴 도끼와 낫 등으로 성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 성방위자들의 용감한 투쟁과 여러 곳에서 모여온 의병들의 성원으로 하여 형편이 불리해진 적들은 10월 10일 최후발악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전투를 지휘하던 김시민이 전사하였지만 온 성안이 모두 떨쳐나 희생적으로 싸워 적들의 거듭되는 공격을 물리쳤다.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진주성함락을 포기하고말았다. 진주성싸움에서 성방위자들은 300여명의 적장수들을 포함한 수많은 왜놈들을 죽이고 많은 군사물자를 로획하였으며 포로되였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진주성방위자들의 영용한 항전으로 이룩된 이 승리는 적들의 전라도침공기도를 분쇄하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참으로 《진주대첩》은 왜적을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 《한산대첩》(한산도앞바다싸움에서의 승리), 《행주대첩》(행주산성싸움에서의 승리)과 함께 임진조국전쟁의 《3대첩》의 하나로 력사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계몽기가요 《봉선화》

계몽기가요 《봉선화》는 1920년대에 홍란파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봉선화》는 홍란파가 고학으로 일본의 우에노음악학교과정을 일정하게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후 고향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향촌마을에서 가난한탓에 학교에도 못가고 방직공장에 팔려가는 봉선이라는 처녀를 위해 바이올린으로 《아리랑》곡을 타다가 언뜻 하나의 곡상이 떠오르면서 작곡되였다고 한다.

처음에 가요는 가사없이 바이올린곡으로 슬프다는 뜻에서 《애수》라고 달았다가 시인 김형준이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는 이름을 달고 불리우게 되였다. 가요 《봉선화》에는 해방전 우리 겨레의 불우한 처지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새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그래서 일제는 가요 《봉선화》를 부르지 못하게 《금곡령》까지 내렸던것이다. 가요 《봉선화》는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 그때를 한없이 그리워하면서 일제의 조선강점에 의해 민족의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였던 당대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분노와 함께 새 세상을 갈망하는 사상감정을 봉선화에 비유하여 형상함으로써 참으로 민족적정서와 향기가 진하게 풍기고있다.

봉선화는 식물학적견지에서 놓고보아도 한해살이식물로서 그 모양도 그렇지만 꽃 또한 자그마한 떨기들이 하늘하늘하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질듯 한 연약해보이는 꽃포기이다. 이처럼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연약해보이는 그리고 한해밖에 살지 못하는 봉선화는 당시 우리 민족의 불우한 운명과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형상적비유의 시적대상으로 되고있다.

계몽기가요 《봉선화》에는 한그루의 꽃포기를 통하여 일제에 의하여 수난을 겪는 우리 민족의 설음과 울분, 원쑤들에 대한 끝없는 저주와 분노의 감정 나아가서 조국해방에 대한 시인의 미학적견해와 사상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8분의 9박자로 된 가요는 소박하고도 은은한 음조로, 장단의 규칙적인 반복과 애절하게 표현되는 속도감과 음량의 조절 등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간다. 하여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민족적인 음악감정정서에 이끌려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이와 같이 가요 《봉선화》는 봉선화라는 하나의 꽃포기를 통하여 시대적으로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사상주제적 과제를 해명함으로써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고있다.

계몽기가요 《봉선화》는 민족수난기의 우리 겨레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하늘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흙, 뿌리 (1)

글 전인광, 그림 김윤일

1

송영백은 그 한줌의 흙이 그처럼 복잡한 문제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흰 띠구름이 줄지어 흐르는 태평양의 가없는 상공을 날으던 비행기가 어느덧 미국서부해안가를 가까이할무렵 시창옆의 의자등받이에 기대여 비행장에 마중나왔을지도 모르는 아들 수민을 생각하고있던 영백은 《손님! 미안합니다.》 하는 상냥한 목소리에 옆을 돌아보았다.

진한 화장내가 물컥 풍겨오는 유혹적인 취향의 금발머리 안내원이 서있었다. 파란 눈을 반짝 빛내며 손에 든 종이묶음에서 한장을 뽑아 건네준다.

《여기 이쪽에 적힌 항목이 반입금지물이예요. 도착전에 적어주세요.》

영백이 받아든 종이장의 한켠귀를 가리키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생긋 웃어보이고 다음 좌석으로 넘어간다. 승객들이 가지고가는 짐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여있는 세관신고서였다. 짐이랄것도 크게 없는 영백은 새빨갛게 칠을 한 그 녀자의 송곳같은 손가락이 짚었던 란을 대충 스쳐보았다. 그러던 그의 시선이 한곳에서 문득 굳어졌다.

《흙이라니, 아니?...》

영어로 표기된 반입금지물 내용을 다시한번 찬찬히 뜯어보던 영백은 가슴이 철렁하여 저도 모르게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아, 여보시오, 안내원!》 하고 벌써 저쯤 간 그 녀자를 다급히 불렀다. 홀깃 뒤를 돌아본 그 녀자는 얼굴이 굳어진 영백을 보자 습관된 직업감각이 살아난듯 대번에 긴장해지며 돌아왔다. 비행기사고가 빈번하다보니 최근 려객기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사소한 표정변화에도 민감하게 신경을 쓴다.

영백은 어지간히 당황한 낯빛으로 《흙》이라고 찍힌 란을 짚었다.

《이것 말이요. 그러니까 흙도 반입금지품에 속한다는 겁니까?》

안내원은 공연히 놀랐다는 듯 호- 긴숨을 내쉬며 커다란 눈을 할깃 흘겼다.

《그래요. 다른 나라의 흙은 절대 들여갈수 없습니다.》

《아니 미국에선 흙까지도 다 단속한단 말이요?》

영백이 꺼멓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되묻자 그 녀자의 얼굴에 의미없이 떠있던 상냥함이 슴배듯 순간에 사라졌다. 노란 홍채막속에서 싸늘한 눈길이 바늘끝처럼 차갑게 일어선다.

《손님, 혹시 흙을 가지고 계셔요?》

영백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금발머리는 미심쩍은듯 머리를 갸웃하고 영백을 얄궂게 한참 내려다본다. 그러더니 할수 없다는듯 빽 돌아서서 앞으로 나간다.

영백은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치받쳐오르는 분노에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평시 체내에 응결돼있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또다시 피줄을 켕기며 살아올랐다.

(이를 어쩐다?)

영백은 막막한 심정으로 잠시 멍하니 앉았다가 놀란듯 자리에서 일어나 짐보관함에서 작은 트렁크를 내리웠다. 무릎우에 올려놓고 뚜껑을 연 그는 제일 밑바닥에서 검은 비로도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것을 감싸쥐자 푸근한 촉감이 느껴졌다. 부드러운 정서의 물결이 일렁이며 차오르더니 한줄기 훈훈한 난류가 취기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간다. 《애야! 이 흙을 늬 아버지 무덤우에 뿌려다오.》

어머니의 갈린 음성이 다시금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영백은 뜨거운것이 핑 고여오르는 눈길을 시창으로 돌렸다. 고향집 정든 뜨락에서 손저어 바래주던 흰옷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 꽉 채워온다.

평생 따뜻한 인간의 감정을 모르고 살아온 메마른 그의 가슴에 생명의 즙을 느끼게 해주고 마침내 그것이 방울방울의 물이 되고 호수가 되여 가슴가득 출렁이게 해준 어머니!

영백은 흙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다시금 느끼는듯싶었다. 그는 조국을 오래 떨어졌던 사람들이 조국을 찾게 되면 고향의 흙을 품에 안고 떠나온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조국에 대한 잊을수 없는 징표로 그것을 품에 안고 가는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직접 느껴보니 그런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다. 지금 안고있는 이 흙주머니는 근 50년세월 그가 잊고있던 조선사람의 정신적뿌리를 그의 의식속에 다시 심어준 생명의 넋이였다.

…미국 서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경영하는 송영백이 폐업상태나 다름없는 영업도 뒤전에 두고 부랴부랴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것은 고향의 어머님이 생존해계신다는 꿈같은 소식을 들었기때문이였다.

그 소식을 가져온것은 그와 오랜 친분을 가진 공목사였다.

음식점을 찾아올 때마다 열두살에 어머니곁을 떠나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도 외우는 영백의 하소연을 귀에 절도록 들어온 공목사는 조국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행사에 해외동포대표단 성원으로 갔던 길에 영백의 고향소식을 알아가지고 날아왔던것이다.

목사 역시 얼마나 반가왔으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비행장에서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을가.

《송선생, 춤추시오. 만세요, 만세. 이런 꿈같은 일이 어디 있겠소. 팔십고령의 어머님이 지금도 정정해서 고향에 생존해계신단 말이요.》

《…》

《어머니를 만나러 갈 차비를 하시오. 하하.》

귀전을 윙 울리는 목사의 갈린 음성이 아득한 하늘 한끝에서 들려오는듯싶어 그 소리를 놓칠가 저어하듯 영백은 송수화기를 귀전에 바싹 가져다댔다. 심장이 후두둑 뛰다가 쿵쿵하는 규칙적인 박동소리로 돌아올 때까지 멍해서 한마디 말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송수화기를 꽉 부둥켜안고 넋없이 중얼거리는 그의 볼을 타고 두줄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